

가슴속에서 넘쳐나는 기도를, 쏟아져 나오는 고백을 그대로 거르지않고 담아본
기도문

주님 제기도를 기다리시고 제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앞에 제가
나오나이다.

제 바램도 열망도 기대도 제가스스로 하는 것이 아님을 제게 다시알게 하신 주님...
감사하나이다.

기도 열망 바램 기대 이모든것이 이미 주님께서 제게 심어놓으신것임을 제가 또
알았나이다.

주님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고 바라는 바램은..... 매일매일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하심속으로 걸어나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삶이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시작되고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영혼의 기쁨지고 풍성한것으로 채워기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신 당신의 뜻이
다른사람을 섬김에 있음을 알게 하였고 그리고 그섬김을 통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심장 그리고 주님의 눈물을 담을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시간들임을 주님은
제게 알게하셨습니다.

다른어느것으로 채워질수없고 다른 누구로도 채워질수없는 영혼의 깊은곳을 하늘의 것으로만 채울수있다는것을 절절히 알게 하신 주님의 사랑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저의 바램과 기대와 열정은 바로 섬김을 위한것임을 또한 알게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순간도 대강 그렇게 살수없는 이유가 거기있으며 저의 전부를 드리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거기 있으며, 그것으로 밖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할수있는 길이 없음을 알기에 ...

그것으로 밖에만이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순종하기를 기꺼이 기쁘게 할수있는 길이 없기에 ...

주님 제가 간절히 주님의 임재하심속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사모하며 걸어들어가길 바라고 기도하나이다.

제생각대로 제계획대로 제뜻대로 하는 모든것이 죄가 될수있음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알기에 ...

주님 , 이 미련하고 우매하고 고집스런 부끄러운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사로잡아 복종시키시는 축복된 삶을 제게 허락하옵소서..

영혼의 궁극적 축복이 거기있음을 제가 아나이다.

제가 잡다하고 부수적인것으로 인해 방해 받지 말게 하소서

원망과 변명과 핑계와 이유 불평과 불만과 질투와 경쟁과 타인의 이목과같은 거짓되고 허망한 것들에 한순간이라도 붙들렸다 놓이는 허탄한 삶을 살지 말게 하소서 .

그럴 시간이, 우리 …나에겐 허락될수 없음을 알게 하소서,

그것이 우리,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아는 지혜임을 기쁘게 알게 하소서

주님 이러한 삶으로 인해 제눈에 보이는 어떠한 사람도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게 하소서 ,

제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도 감사하지 않을수 없는것이 없게 하소서.

다른것들이 제마음과 삶속에 자리하기에는 제게 허락하신 삶이 너무나도 소중한 삶의 순간,순간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분초마다 깨닫게 하소서.

제영혼에 채워질수 있는것이 오직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삶 안에서만 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하오며 그것이 주님으로 밖에 올수 없음을 알게 하신것에 감사하나이다.

우리의 시각과 관점과 기준이 우리를 뛰어넘는, 너무나 높은 주님께 있어야 비로소 사랑다운 사랑, 감사다운 감사가 만들어지는것을 알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거룩하라 하신 주님의 깊고 놀라운 사랑의 이유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리나이다.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추락의 시작일수밖에 없는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같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사모함이 없이는 주님 비슷한 삶도 절대 살수없기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주님주시는 백퍼센트의 순수한것으로만 담기만을 바라는 바램을 위해 피흘려 싸우는 삶이 없이는 우리의 삶에는 오물같은것으로 군데 군데 덕지덕지 덮혀질수밖에 없음을 알기에...

그리고 그때부터는 추락일수 밖에 없음을 알기에.....

그래서 우리삶에는 간절한 바램과 사모함이 다른것에 있어야 하는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어야 하며 주님께서 내게 심어놓으신 기도속에 있어야 하는 것을 알게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럴듯한 상식과 이유가 그리고 누가들어도 아주적절한 타당한 핑계가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외의 모든 순간과 주님을 바라보는 그곳외에 모든곳에 무수히 존재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눈과 귀가 주님께 고정되어 있어야하는 절대적 이유가 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속에서 시작되어지지 못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과 사랑으로 살지

말게 하소소 .

그런 위험함에 나를 맡기는 미련한자가 되지 말게 하소소.

그러기에는 주님께서 제게주신 기도가... 주님께서 제게주신삶이 ...너무소중하고 아름다운것임을 제가 아나이다.

영혼의 기름지고 만난것으로 제영혼과 뼈와골수에 채우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분뿐이시며 주님과 제눈동자가 마주치는 그촛점에서만 시작되는것임을 제게 알게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제 생명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사모함이 제게 늘 살아있는 축복이 되게 하소소

주여..제 잔이 넘치나이다.